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찬만하길 바라는 기도 [골로새서 1:9-14]

설교자: 마티아스 샷 (Matthias Schat)

9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1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지난번에 우리는 바울이 골로새인들 가운데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골로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찬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우리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지식으로 가득 차고 이 지식이 그들의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무엇인지 상기시켜 줍니다.

1, 이 기도의 목적: 바울은 왜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찬만하길 기도합니까? 이에 대한 답이 10절에 있습니다. *10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서 1:10), 바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하고 또한 그 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이 삶엔 특정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합당한 삶의 네 가지 측면에 대해 기도합니다. 첫째, 골로새 교인들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지식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다르게 살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이신 선함으로 인하여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게 되길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분의 자녀들을 위해 행하신 일에 관해 더 잘 알게 될수록 그 분이 누구이신지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인내하며 견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어떤 시련에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찬만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이를 실천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찬송을 드리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사는 이유인가요?

2, 이 기도의 근거: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골로새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으로 찬만하도록 기도합니까? 이 근거가 오늘 설교본문 13-14절에 있습니다. *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13-14). 바울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분의 백성들을 위해 이미 행하신 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구속하셨습니다. 구원과 구속이라는 단어의 출처는 이집트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이 언어를 사용하여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경험하는 더 큰 구원; 즉, —어둠에서 빛으로의 구원— 우리의 구속과 죄 사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입니다. 오늘 설교본문 13-14절에 있는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용서의 언어를 당연시해선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찬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바울과 함께 기도합시다.